



# CANCELLED FACES

A FILM BY LIOR SHAMRIZ

공백의 얼굴들



연인에게 흡수되어버릴 것만 같은 두려움에 질린 채,  
오랫동안 스스로를 위해 분투하는 한 남자가 있다.

A man, striving for autonomy, in fear of being absorbed by his lover

Written and Directed by **Lior Shamriz**

각본/감독 리오 샴리즈

with

**Kim Won-mok** 김원목

**Lee Je-yeon** 이제연

**Ye Soo-jeong** 예수정

**Won Tae-hee** 원태희

**Kim Hye-na** 김예나

Music by **Ohal Grietzer**

80 minutes. B/W. 2015

Produced by **spektakulativ pictures**

[www.spektakulativ.com](http://www.spektakulativ.com)

[contact@spektakulativ.com](mailto:contact@spektakulativ.com)





## **DIRECTOR MINI-STATEMENT**

*Lior Shamriz*

A recursive search for an autonomous identity or a selfless submission to a global monolithic power: These are the two main options the world gives a film director today. Neither I wanted to take in this project. *Cancelled Faces* is rather a journey yielding to imaginary histories of cinema and hopeful bodily geographies. It comes into a fictive realm where poetic queer cinema aspires to carry the same shamelessness of its foreignness that Sergio Leone had when arriving in the Wild West. Absorbing imperfection with loose ends it lets the viewer breath in their possible inner-expansion, instead of consolidating power and form.

On the surface level, the film is pretty much straightforward a Korean film, not really a film about me making a film in Korea. I understand this might be seen as a reactionary interference with a certain status-quo. In the same time, I can assure you that beneath this surface, it is very much connected to my own personal perspective on places I've journeyed through in life and on histories in the shadows of which I had lived.

This approach I believe is more invoking.

In writing, directing and editing the film, I did all I could to make sure that a viewer will not make the connection between what is seen and what is being referred but I might have failed in concealing.



## 유대인들의 제국적 무의식

Ron Naiweld\*

### 1.

‘Cancelled Faces(공백의 얼굴들)’은 서기 70년 예루살렘의 몰락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참조한다. 이 사건이 지닌 시적 가능성은 유대인의 패배 이후로 이미 오랜 기간 다루어져 온 바 있다. 황제의 아들 타이투스가 이끄는 로마군이 도시의 벽을 무너트리고 불태웠을 때 신, 황제, 그리고 인간 존재가 그들과 맺는 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 생성에의 실마리들이 생겨났다. 당연하게도 그 사건은 유대 역사와 기독교적 신앙(christianity)의 발달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로마 스스로 제국적 힘을 지각하는 데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 전쟁은 그러므로 우리가 “서구the West”라 부르는 문화적이고 이론적이며 정치적인 군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전환점을 구성한다. 이를 다르게, 좀 더 급진적으로 말하자면 ‘서구’의 시작을 다 사다난했던 서기 70년의 여름으로 놓고 이야기를 전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로마에 대적한 유대 전쟁은 전쟁 4년 먼저인 서기 66년에 시작되었지만 로마를 향한 유대인의 적대심은 그보다 더 멀리 거슬러 올라간다. 유대-로마 역사가인 Flavius Josephus에 의하면 열혈당파(the Zealots)들의 내란적 움직임은 (그는 열혈당파를 바리사이파, 사두개파, 에세네파에 이어 유대교의 “네 번째 철학”이라 부른다) 수리아 지역의 로마 총독이었던 구레노가 관할 내 인구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했던 서기 6년에 형성되었다. 로마 군인들은 거주민들의 수를 세고 제국 정부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마을로 보내졌다. 인구 조사가 당장의 정치적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었지만 열혈당파는 이를 이미 그들 자유의 침해로 보았던 것이다.

열혈당파원들은 아마 급진적인 일신 교도들로 정의될 수도 있다 : 그들은 신과 신의 법에 완전히 따르지 않는 그 어떤 인간 정부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Josephus는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그들은 자유에 대해 불가침의 애착을 가지고 있었으며 오로지 신이 그들의 지도자요 하느님이라고 말했다.” (Antiquities 18:23-5) 열혈당파들에게 있어서 그들 땅을 차지했을 뿐 아니라 여러 신에게 의지하는 로마는 오랑캐적인 힘이었다. 제국에 의한 인구조사는 외래 정부의 주체가 됨과도 같았다. 그것은 외환율을 따라 돈을 쓴다는 것을 의미했고, 타인의 기준에 의거해 나의 삶을 평가함을 의미했다.

열혈당파가 전쟁으로 이어질 만큼의 조직적인 움직임을 구성했었는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성서적-일신교도적 가치의 이름으로 로마 권력의 적법성을 약화시키려고 했던 유대인들의 몇몇 시도들이 이 시기에 있었다. 이들 중 가장 야심 찬던 시도가 신약성서에 나오는 바울의 편지에 기록되어 있다. 몇 십 년 전 독일계 유대인 사상가인 Jacob Taubes는 편지의 보편적 메시지가 로마 제국의 와해에 대한 성명서임을 제기하면서 바울을 열혈당파원으로 볼 것을 제안했다. 서기 40년에서 60년 사이에 쓰인 바울의 편지에서 예수의 이야기는 제국적 용어들로 강조되어 있다. 바울의 예수는 안티-시저이며, 그가(예수가) 부활할 때 제국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질 것이다.

성서와 바울의 편지가 쓰인 시기에는 적어도 십년에서 이십년의 간격이 있다. 이 기간동안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다. 예루살렘은 로마에 의해 파괴되고, 바울은 죽는다. 그러나 열망하던 세 번 째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예수의 메시지가 한번 더 변해야 함을 의미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영적 사상가가 아닌, 이야기꾼들이었다.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들은 바울의 신학에 담긴 허무주의적 차원(제국적 권력의 끔찍한 표출 앞에 당연한 반응이었을)을 약화시켰다. 정말이지 그 순간부터 주류 기독교성은 제국적 질서에 호환 가능한 것으로 스스로를 재현하기에 바빴다.<sup>1</sup>

로마의 승리에 영감을 받은 이야기들은 성서 말고도 많았다. 제국 스스로가 전쟁 뒤의 창작 활동에 가담했다. 로마 프로파간다에 있어서 유대인을 꺾고 거머쥔 전쟁의 승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승전에 대한 시각적 묘사를 담은 Arc of Titus 같은 기념비 제작은 물론, 71가지 종류의 동전을 새로 발행하기도 했다. 동전에는 Judea capta(정복당한 유대)라는 문구와 함께 야자수 아래에서 흐느끼는 여성의 이미지가 새겨졌다. 동전의 다른 면에는 황제의 초상화가 있었다. 유대인의 패배는 그의 권력의 상징이 되었다. 만약 동전이 시였다면, 이 비슷한 내용을 읊었을 것이다.

황제여  
당신의 월등한 힘이며  
유대인들의 허무맹랑한 일신교적 꿈은 영원히 이루어지지 못할지어니

### 2.

비단 로마가 아니더라도 ‘제국’이라는 개념을 빼놓고 유대인의 역사를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Flavius Josephus에 따

\*Ron Naiweld는 파리의 CNRS 소속 역사가이다.

<sup>1</sup> 바울에 따르면 예루살렘을 천국과도 같은 왕국으로 대체하는 일은 신의 의무였다. 제국이 예루살렘의 영토를 파괴했을 때, 제국은 신의 도우미 역할로 스스로를 빌려주었다는 것이다.

르면 “유대인(Jews)”이라는 호칭 자체도 기원전 600년 경 페르시아 제국이 고대 유대에 다시금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고 주를 세움으로써 생겨났다고 한다. 하지만 이야기는 이보다 더 멀리 나아간다. 이야기의 뿌리는 고대 전통에서 이미 발견되며, 히브리어 성서의 서사적 부분에 집약되어 있다.

성서적 신화가 흥미를 끄는 주요 지점들은 다음과 같이 묘사될 수 있다: 야훼라 불리는 신이 일군의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들의 신의를 얻기 위해 기적을 행하며, 선택받은 무리들이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 요소를 제공한다. 장소와(약속의 땅) 규율이다. 야훼를 특별한 신으로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두번 째 요소이다. 다른 국가적 혹은 민족적인 신들과는 달리 그는 단지 지도하는 역할 이외의 다른 것을 제공한다. 행위함에 있어서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도덕적 규율에 대해 널리 알리고자 한 것이다. 그는 그의 신민들에게 완벽한 정부를 향한 단서를 제공했다.

야훼는 “모든 신을 뛰어넘는 가장 훌륭한 왕”이라며 열성적인 찬송가는 몇 번이고 반복한다. 찬송가를 만드는 사람은 시인이다. 그는 그의 말들을 신중하게 고를 것이다. 시인은 야훼가 모든 신의 신이라고 말하는 대신 모든 신들의 왕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의 왕국이 영원히길 기원한다(146,10). 이 흥분한 시인이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섬세함이라고는 없다 : 야훼는 모든 신들과 왕들보다 우월하다는 것.

성서적 시인이 야훼의 왕권을 촉진시키기 위해 천재성을 그토록 과도하게 투입해야만 했던 이유는 사람들이 이 신을 좀체 그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성서적 이야기의 많은 부분이 신과 국민들 사이의 합일점을 찾는 일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어려웠는지에 대한 묘사에 할애되고 있다. 몇몇 절묘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길게 놓고 보면 그것은 언제나 실패했다.

첫세기의 열성어린 성서적 뿌리가(또 바울의 정치적 허무주의가) 여기에 기인한다. 완벽한 규율이라는 것이 존재하나, 행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 열혈당파는 이 힘빠지는 현실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킨 주범이다. 한 사람이 온전히 “신의his” 신성한 규율에 따라 살 수 없다면, 잘못된 신이나 신의 규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쪽에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제국이고, 제국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은 고의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들에게 부여된 역할을 매우 충실히 이행했다.

### 3.

예루살렘의 몰락이 야훼의 규율에 따라 지도되는 유대 왕국을 건립하려는 희망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아니었다. 바르 코르바 전쟁(132-135)에서의 엄청난 참패만이 열혈당파원들을 잠시나마 잠잠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로마가 그곳에 머물기 위해 왔다는 것이 분명해졌고, 제국주의적이지 않은 세상에서는 자유를 향한 욕구 역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도 분명했다. 제국을 향해 단정적으로 부정적이지만 한 태도들은 이제 폐기되어야만 했다.

랍비식 유대교의 형성은 이 시기 즈음이다. 최초의 랍비적 문서의 저자들은 서기 150년 경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멤버들이 야훼와 제국 둘 모두의 아래에서 사는 일을 가능케 한 법적이고 이데올로기적 담론들을 창조해냈다. 바울 이후의 기독교인들처럼, 그들도 총체적 독립에의 일신교도적 꿈을 단념하고 제국의 세계 내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로 한 것이다.

몇 세기가 지난 후, 이 재화합의 기원에 대한 랍비식 전설이 구축되었다. 전설은 1세기가 끝날 무렵 유명했던 랍비인 라반 요한난 벤 자카이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야기에 따르면, 황제가 도시의 외벽 바깥에서 랍비를 만났을 때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노라 말했다고 한다. “시저 애호가”로 불리우기도 하는 이 랍비는 황제에게 “야브네와 야브네의 현인들”을 해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한다.

라반 요한난의 전설은 랍비 사상에서 황제에게 중요한 기능이 부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들 프로젝트의 성취에 있어 필요 요소인 객관적 구조를 제공하는 기능이 그것이다. 고대 랍비들은 로마를 “사악한 왕국”으로 여겼지만 바로 그 지점을 로마로부터 동의 없이 유대적 욕망의 성취를 위해 채택하기도 했다. 간단히 말해 이것이 야브네의 현인들이 택한 마조히즘적 해결책인 셈이다. 희망을 인간적 차원으로 퇴행시키면서 이 이야기는 분립alienation은 문제 자체이지만 문제의 해결책이기도 하는 것을 상기시킨다.

야브네의 현인들은 시인도 역사가도 아닌 차라리 랍비나 재판관에 가깝다. 그들의 메시지는 아래와 같은 지침서로 만들어져야 할지도 모르겠다:

**당신이 자유를 향한 욕망을 충족시키고 싶다면 타인의 현전과 동화되어야 한다. 이 자는 아마 당신에게 제국주의적 힘을 행사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당신의 만족감에 사용하라!**

*Don't Truth Me, Unk,  
And I Won't Truth You!*

*(Kurt Vonnegut / The Sirens of Titan)*



## 절대의 무분별한 미끄러짐

Ramzi Hibri \*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자유를 길들임이며, 금지된 사랑을 실현시키는 것은 그 자유를 파열시킴이다. 이는 비단 감각적인 영역 일 뿐 아니라 이데올로기적 해방이기도 하다. 동생에게 하는 자기고백에서 영크는 이 이데올로기를 명확히 한다. 동생은 입대 이후 스스로가 ‘더 큰 것의 일부임을, 우리 모두 그것을 알지만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마는 사실임’을 깨달았다 말한다. 영크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고등학생이던 시절, 네 몸 안에 내가 들어있는걸 상상하곤 했어. 네 몸 안에서 생각하고, 네 세계를 경험하고. 내가 너라고 생각하면서 자위를 했어. 네 몸 안에서 너의 여자친구에게 삽입하는 상상을 하면서. 그땐 그게 흥분 되더라.” 그렇다면 이것이 그의 계책이다. 다른 사람의 피부를 입는 것, 가면 뒤에서 엑스터시를 찾는 것. 이것이 그의 신화이고 그의 자유이다.

한국 영화를 만드는 이스라엘인 국외 거주자. 삼리즈가 하려고 한 일이 같은 일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타자 앞에 놓인, 국외자의 앞에 놓인 어떤 종류의 신성함이다. 이는 영화의 건축적 외도에서, 인물들의 부재에서, 전라의 도시에서 드러난다. 또 얼굴들에서, 감정의 모서리에서 정적이 내는 불협화음의 울림 속에 마치 조각상처럼 드러난다. Emmanuel Levinas는 얼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얼굴에의 접근은 그 즉시 윤리적이다 ... 처음에는 얼굴의 바로 그 강직함이, 방어 없는 그 노출이 있다. 얼굴의 피부는 가장 벌거벗은 상태로, 가장 극빈하게 놓여있다. 비록 벌거벗고 있지만 전라의 품위가 있다. 가장 극빈한 이 얼굴에는 또한 필수적인 가난이 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우리가 얼굴에 자세를 취하려고 시도함에, 표정을 취함에 있다. 얼굴은 마치 우리를 폭력의 행위에 초대하기라도 하듯 노출되어 있으며 위협을 당하는 것 처럼 보인다. 하지만 죽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 역시 얼굴이다.<sup>1</sup>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삼리즈는 그의 아이코들을 통해서—세계화, 영크의 핸드폰과 티비 화면에 비치는 신화, 초기 유대교 신화, 인간의 봉건적 직관들을 통해서— 소통한다. 영크가 그의 연인을 두고 하는 독백처럼(“그는 정말 부유했다, 그리고 나는 너무 가난했다”) 아이코들은 이중적이고 딜레마적인 망명을 생산해낸다. 봉건적 자본주의에 대한 기념비, 소실점에서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그 기념비에 해체용 철구를 들이받는 도상학이다. 죽음 속에서 조화될 수 없는 것들을 조화시키고자하는 이 아이코노그래피는 언어의 방사능적 피부로서 기능한다.

공경이란 간단하다. 국민으로서 규범화된 법적 행동에 따르지 않는 행위는, 한 개인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직접적이고 눈에 보이는 결과를 불러일으킨다. 국외자로서는 가장 작은 불복종의 행위도 국외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 조건으로 인해 모든 것을 얻을 수도 있다. 이 차이는 떠날지나 머무르느냐의 선택지를 차치하고 단일한 장소에 존재하는데, 이것이 바로 망명자들을 그들만의 땅에 위치시키는 세계화의 결과이다.

망명은 끝없는 총만함에서 태어난 육체가 그 신화로부터 해체되고 박탈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엄격한 계층화 내에서 개인을 규제하고 미리 결정하는 행위에 의해서, 그리고 정복할 수 없는 공공에 대한 왜곡된 물질주의에 의해서 자행된다. 망명자들은 감시와 검열에 대한 강박으로부터 기인한 관료제의 무력함에 예속되고, 그들 생존 조건의 취약함에 있어 고분고분해진다. 이 상황이 직관의 위기에 박차를 가한다. 위기는 제도적인 구조 내에서 변경이 불가능할 것만 같은 단단함, 그러한 힘에 대한 환상에 기인하고 있다. 시스템이 커뮤니티 내에서 변화의 외래적 거주자를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근절시키며 그 스스로의 불사 신성을 유지하고자 할 때 직관의 위기는 도래한다. 직관은 변화의 찬조에 의해 피어나는 반동적이고 반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행 없이는 시들며 마비된다.

시간이 언제나 변하는 성질의 것이고 변하면서 다른 모든 것들도 다 바꾸어놓는다면, 그리고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직관이 영양분으로 삼는 지점이다. 우리가 억압을 받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질 유일한 것들은 우리의 비밀스러운 자아와 유동적인 내면이다. 공간적 억압에 처해있는 피난민과 죄수들은 불가능한 탈출을 필요로 한다. 가동성과 공간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도록 강제당한 그들에게 탈출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 없을 때, 그들은 명상을 할지도 모르겠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벽이 여러 겹이 되고 마치 시간 속에 속한 것처럼 명상할 때에, 그 세계를 인지할 수 있는 능력만큼이나 그들의 한계는 사라진다. 망명자들이 인종주의적 차별을 경험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명상이 본질의 넘쳐남을 기화시키고, 망명자들에게 잠시잠깐 그들 자신의 살로부터 스스로를 떼어내는 일이 가능해진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 너머로 가고, 간혀 있는 외면과 묶여있지 않은 내면 사이에서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보다 그들 자신이 차라리 무한히 자유로움을 발견하는 것이다.

\*Ramzi Hibri 는 레바논에서 태어난 행위예술가이자 영화감독이다.

<sup>1</sup> Emmanuel Levinas, Ethics and Infinity p.85-86



*The face is exposed, menaced, as if inviting us to an act of violence.  
At the same time, the face is what forbids us to kill.  
Emmanuel Levinas*



## DIRECTOR BIOGRAPHY

리오 샴리즈 (Lior Shamriz) 감독에 관하여

리오 샴리즈 감독의 영화는 베를린 영화제(Berlin Film Festival : 2010 년, 2013 년, 2015 년)를 비롯하여 로카르노 (Locarno : 2007 년), 프레임라인 (Frameline), 뉴욕의 모마 (MoMA New York's ND/NF :2008), KW-Berlin, 파리의 뽐뽐두 미술관 (Centre George Pompidou Paris) 과 쾰른의 박물관 (Ludwig Museum Köln) 등 수많은 국제 영화제에 초청되어 상영된 바 있으며, 오버하우젠 (Oberhausen Kurzfilmtage : 2013 년, 2014 년, 2015 년) 과 Achtung Berlin 등의 영화제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다. 그는 장편영화로 막스 오펔스 상(Max Ophüls Prize)에 노미네이트 되었으며 독일 국립박물관에서 수여하는 독일의 신진 영화예술 대상의 최종후보까지 오른 바 있다. 뿐 아니라, 데살로니키 국제 영화제 및 이스라엘 영화제 등에서 레트로스펙티브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 SELECTED FILMOGRAPHY

- 2014 \* **“L’amour sauvage”**, 25 mins
- 2013 \* **“The Way of the Shaman”**, 50 mins (video installation)
- \* **“The Present of Cinema”**, 7 mins
- \* **“The Runaway Troupe of the Cartesian Theater”**, 18 mins
- 2012 \* **“Beyond Love And Companionship”**, 18 mins
- \* **“A Low Life Mythology”**, 80 mins
- 2011 \* **“Mirrors for Princes”**, 63 mins
- 2010 \* **“Ritenuto”**, 48 mins
- \* **“Titan”**, 40 mins
- \* **“Return Return”**, 26 mins
- 2009 \* **“Saturn Returns”**, 93 mins
- 2008 \* **“The Magic Desk”**, 10 mins
- \* **“The Vacuum Cleaner”**, 7 mins
- 2007 \* **“Before the Flowers of Friendship Faded Friendship Faded”**, 7 mins
- \* **“Japan Japan”**, 65 mins
- 2006 \* **“Ho! Terrible Exteriors”**, 28 mins
- 2005 \* **“Return to the Savanna”** – 6 short films, 75 mins in Total
- 2002 \* **“Albania”** 7 mins



All around is dark, and silent.  
The city has drawn in,  
Extinguishing its windows. The houses have approached.  
They crowd in close, attentive:  
This audience of cancelled faces.

[ from The Couple - Tomas Tranströmer / Translated by Robert Robertson ]



With 출연진  
**Kim Won-mok** 김원목  
**Lee Je-yeon** 이제연  
**Ye Soo-jeong** 예수정  
**Kwon Ki-ha** 권기하  
**Kim Hye-na** 김예나  
**Won Tae-hee** 원태희  
**Park Jun-hyeok** 박준혁  
**Lee Ju-hee** 이주희  
**Kim Tae-hee** 김태희  
**Seo Bo-sang** 서보상  
**Gim Ye-na** 김예나  
**Seo Li-seul** 서리슬  
**Kim Yoo-jin** 김유진  
**Lee Han-saem** 이한샘  
**Park Jeong-woo** 박정우  
**Jang Hee-jeong** 장희정  
**Lee Jeong-hoon** 이정훈  
**Kim Sun-young** 김선영  
**Lee Jae-ho** 이재호  
**Park Sung-jun** 박성준  
**Jung Woo-hyun** 정우현  
**Jang Gun-hee** 장근희  
**Park Je-ha** 박제하

Written and Directed by  
**Lior Shamriz**

각본/감독  
**리오 샴리즈**

Production Manager  
**Kim Kyeongkoo**  
프로덕션 매니저  
**김경구**

1st Assistant Director  
**Lee Mire**  
조감독 1  
**이미래**

2nd Assistant Director  
**Yena Gim**  
조감독 2  
**김예나**

Costume Designer  
**Oh Seborg**  
의상  
**오세봉**

Title Illustration  
**Lee Hwapyung**  
일러스트  
**이화평**

Associate Producer  
**Naama Yuria**  
협력  
**나마 유리아**

Production Assistant  
**Jo Kyungwon**  
**Kwon Hyuck-bin**  
제작부  
**조경원**  
**권혁빈**

Special Coordination  
**Lee Jihoi**  
특별협력  
**이지회**

Music  
**Ohal Grietzer**  
음악  
**오알 그라이저**

Produced at  
**Seoul Art Space**  
**Geumcheon**  
금천예술공장

Produced by  
**Lior Shamriz**  
제작  
**리오 샴리즈**

Color Correction  
**Sebastian Bodirsky**  
색보정  
**세바스티안 보더스키**

Sound Design  
**Assaf Gidron**  
음향  
**아사프 기드론**

Sound Mix  
**Jochen Jezussek**  
사운드 믹스  
**요헨 예쯔썸**

Special Thanks  
**Lee Seung Jae**  
**이승재**  
**Kim Soo-a**  
**김수아**  
**Sylbee Kim**  
**김실비**  
**Sungeun Kim**  
**김성은**